

유가·금리 더블쇼크 성장주 부담 가중, 3대지수 4거래일째 약세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국채금리 급등 속 반도체마저 약세... 오라클 실적발표 후 시간외 강세

- 미 증시는 DOW -0.60%, S&P500 -0.58%, NASDAQ -0.65% 하락. 통신서비스, 필수소비재 상승, 기술주, 소재, 유틸리티 등 대부분 업종 약세
- 유가, 금리 상승폭 확대에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도체 섹터도 약세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-2.7%. 한편, 오라클(-5.4%) 마감 후 실적 발표에 시간외 +5%대 강세

중동 장기전 관측 및 홍해 통제권 약화에 WTI 도 \$100 선 ↑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102.5(+6.7%), Brent \$107.6(+6.3%). WSJ 보도 내용에 우려 증폭. 이란이 지하시설에서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했다 보도. 또한 트럼프대통령 최측근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 언급했다 보도
- 후티 반군의 홍해 요충지 모카 점령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 장악 및 홍해지역 물류 차질 우려 확대 역시 유가 상승압력 작용
- 한편, 사우디 8월 산유량 26년래 최저치, 이라크 생산량 제한 문제로 OPEC 탈퇴 고려

에너지발 PPI 상승, ECB 금리 인상 단행에 10년물금리 5%대 압박

- 8월 PPI MoM +0.4% 전월비 ↑ ·컨센 부합, YoY +5.4% 전월·컨센 상회. 근원 PPI MoM +0.2% 전월·컨센 하회, YoY +4.6% 전월비 ↑ ·컨센 부합. 최종수요 재화가격 MoM 1.1%, 에너지가격 +4.2%로 상승분 대부분을 차지. 서비스가격은 MoM +0.1% 상승
- ECB 3개월만에 +0.25%p 추가 금리인상 단행하며 다음주 FOMC 금리 인상 우려 자극
- 국채금리 상승 10Y 4.944%(+10.9bp) 2Y 4.550%(+12.3bp). CME FedWatch 9월 인상확률 71.3%, 12월까지 동결전망 5% 불과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ORCL	오라클	-5.4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외 +5%대 상승중.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에 시간외 강세.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+121%YoY 급증하며 컨센서스 상회. 데이터센터 용량 850MW를 추가 증설한 가운데 앞서 발표한 \$20B 규모의 유상증자(ATM)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발표. 자금 조달 및 데이터센터 건설 난항 우려로 6월 고점 대비 주가는 조정 받았으나, AI 서버 임대 등 클라우드 인프라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
TSM	TSMC	-1.7%	파운드리 호조에 8월 역대 최대 월간 매출 기록 경신. 8월 매출 +53.3%YoY, 1~8월 총매출액 +39.3%YoY 증가. 내년 4월 최첨단 1.4나노 공정제품 시험생산 계획. 다만 유가 및 금리 압박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주가는 하락. 인텔(-5.6%), 마벨(-3.4%), 마이크론(-4.9%), 샌디스크(-4.1%) 등 주요 AI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약세 기록
NVDA	엔비디아	-2.4%	미 법무부가 엔비디아-그록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우회인수이혹 반독점 조사에 나섬. 한편 그레이크 블랙웰 출하량 +27%MoM 증가
F	포드	+3.2%	미 교통부 및 국가안보 당국이 데이터 보안과 공급망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, CATL 등 중국산 배터리 도입 제재에 나섬. 당국의 규제 강화 시 배터리 조달 비용 상승, 공장 가동 지연, 세제 혜택 축소 및 벌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
ADBE	어도비	-2.4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외 -2%대 하락중.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며 견조. 다만 차기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상단에 미달하며 주가 약세